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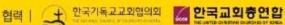
2020.09.13.(주일)

















제8회 생명보듬주일

자살예방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주일

2020.09.13.(주일)



생명보듬주일은

세계자살예방의 날(9.10)을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 예배와 기도로 함께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9길 5, 201호 T 070-8749-2114 / F 02-2632-2005

이 사 장 임용택 목사

대 표 조성돈 목사

이 사 권구현 김대동 김상현 김양재 김학중 노용찬 박광리 박상칠 유영권 이종국 임재웅 장동학 장철상 정성진 정현구 조흥식 최의헌

전국지부 경기북부(고영수) 경기남부(이명환) 오산(박형윤) 청주(정상구) 울산(한기양) 광주전남(노용찬) 전북(박용태) 충남(오세훈) 강원(이상주)

서울지회 영등포(장진원), 강동(오만종), 강북(박상철), 중랑(정군식), 강서(최석 진), 마포(하영호)

목차

ロラ	1
一つ	I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1
2020 생명보듬주일 초청사 (LifeHope 임용택 이사장)	2
2020 생명보듬주일 인사말 (협력단체)	3
2020 생명보듬주일 주제해설(LifeHope 대표 조성돈)	6
2020 생명보듬주일 선포식 기도 (NCCK 생명문화위원회 오동균 신부)	7
자료	
Chapter. 1 — 공동예배 설교문	9
Chapter. 2 - 청소년 설교문	15
Chapter. 3 - 추모예식서	19
추모예식 가이드	24
소개	
주관단체 소개	26
함께하는 단체 소개	28
도움의 기관 연락처	31
제9회 안양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포스터	33

[생명보듬주일 공동기도문]

생명의 하나님, 이 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 생명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제8회 생명보듬주일 초청사

생명의 골든타임, 한국교회가 지켜나갑시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이사장 임용택 목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고난 중에도 성도 간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스파조마이!

헬라어로 문안하다, 포옹하다, 격하게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런 인사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대부분 조금만 참으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일상(New Normal)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달갑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 큰 손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벌써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2020.08.23.) 경제손실이 9조 달러(1경 1천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손실은 마음의 상실입니다. 소위 코로나-블루 현상입니다. 요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과 맞서 싸울 때는 마음이 단단합니다. 문제는 싸워도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어려움이 반복될 때입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맞이한 다음 해인 1998년과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움이 있었던 다음 해인 2009년에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올후반기와 내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명보듬주일(9월 13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스파조마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입니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임용택 목사님과 조성돈 대표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은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소외감, 우울증, 열등감, 좌절감등으로 정신적 질환자가 점점 증가한다고 하는 두려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다음 단계는 자살충동이라는 점입니다. 우울증, 열등감, 패배감이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비교, 학력비교, 경력비교, 경제력 비교, 자녀의 비교, 배우자의 비교등 그러다보면 결국 사회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굴레 속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망과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사명과 역할을 찾는다고 하면 그 모든 어두움의 터널을 한순간 벗어나게 됩니다. 열가지 내게 있는 것 중에 두세 가지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생활을 합시다. 모쪼록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기독교자살예방센터에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 세미나에도 큰 성과와 좋은 역할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생명보듬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은 누구나 소중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사람의 생명을 재단하는 일은 안됩니다. 사형도 안되고, 자살도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살유가족을 잘 보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피투성이 인 채라도 살아라"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려운 환경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살아내야 하고, 나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형제들을 돌아보아 어려운 생명들을 우리가 부축하고,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봉사단 대표회장 정성진 목사-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회 제8회 생명보듬주일, 9월 1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단순히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현상을 보듬고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사람 이외에 모든 생명존재를보듬어 안고, 이끌어 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생명에는 신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다양한 생명 현상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사회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듬는 그 일에 적극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주관단체로써 우리 한목협 또 이와 연관된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 모든 성도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 행성에, 또 우리 사회 이 동아시아에 생명을사랑하고, 생명을 보듬는 일이 아주 긴요합니다. 모두 이 일에 적극 동참해서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분명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생명보듬주일 선포하게 되는 주관하는 실무자 존경하는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사업에 가장 협력적이고, 가장 선도적인 기독교자살예방센터 LifeHope를 환영하고, 그 모임에서 활동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2003년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날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자살 예방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빠짐없이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에서 9월 생명보듬주일 행사를 선포하신다는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장고귀한 선물인 생명을 모두가 서로 소중히 지켜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더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명보듬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웃을 더욱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요.LifeHope는 서울시 생명사랑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보듬주일 아름다운 시간들로 소중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 김현수-

안녕하세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사무총장 조은하 교수입니다. LifeHope가 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땅에 생명문화를 전하는 일에 응원하고, 함께 힘을 모읍니다. 특별히 생명보듬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땅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희망과 생명의 문화를 확신 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사무총장 조은하 교수-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 조성돈 목사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되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더욱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자신이 하는선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레19:17) 질문합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앎의 차원에서 "이웃이란 무엇인가?"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행함의 차원에서 "누가 네 이웃인가?"를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자기의 지식과 판단에근거해서 '무엇'에 관심을 두었다면, 예수님은 고통 받고 있는 그 자체속의 '누구'에게마음을 두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이웃에 대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논의에 골몰했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행동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Go and do likewise)

올 해 생명보듬주일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펜더믹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한국 교회에 도전과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생활 모든 부분에서 제약과 통제가 일상화가 되었으며, 눈과 입을 막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 병들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병리적 우울 등이 증가, 충동적 자살, 고독사 등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위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무관심과 오히려 증오와 혐오가 우리의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소망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문화를 지키고 회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 지금이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도 강도 만난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 도와주어야 할 때 입니다.

이에 이번 생명보듬주일은,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소중한 생명의 운동으로 확산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가치를 넘어 희생과 사랑으로 생명을 돌보고, 생명의 문화와 캠페인을 외치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켜 나아갑시다. 함께 모일 수 는 없지만, 각자의 지역과 삶의 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명보듬이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CCK 생명문화위원회 오동균 신부 (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 태초에 우주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력을 부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빚어내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비로소 생명을 담은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자연 가운데서 공동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숨결 가운데서 우리는 당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담아내려고 하루 하루 당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신음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당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신음하면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의 손길도 맞잡지 못한 채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불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경쟁과 무관심,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 분노와 분열, 원수맺음과 당파심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리디 여린 영혼들은 상처입고 병든채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천민자본주의의 폐혜로 수많은 영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계에서 가장 자살율이 높은 오명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는데 앞장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러한 불행을 막는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창조의 희망을 간직하여 아무리 험하고 모순된 세상에서라도 살아남아 창조의 목적을 이룩하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변에 자신을 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을 잡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 뿐 아니라 이 땅의 불행한 사람들 곁에서 생명의 에너지와 희망과 의지를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기 독교자살예방센터와 한국교회가 함께 이 부르심에 손을 맞잡고 나섰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가장 외로운 사람들 곁에, 가장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곁에 서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삶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서 당신의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보듬주일 목회 자료

생명을 보듬는 사람들

지형은 목사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성경 본문 : 요한복음 1장 1~14절>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처럼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생명, 하고 말하면서 종종 그 신비로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모든 생명 중에서 중심적인 현상입니다. 칠년 전, 아버님이 소천 하셨습니다. 소천하신 다음날 제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꽃잎 하나 떨어지면 그 안의 우주가 진다 수많은 이야기 담은 채

세상에 계시던 한 분 하늘로 부름 받으시면 세계 하나가 진다

걸음걸음 삶의 발자국에 험한 격동의 시대를 넘은 사랑, 아픔, 정열, 용기 그리고 못다 이룬 꿈 새긴 채

그러나 아시나요, 그 이야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이어진다는 것을요

삶은,

그리고 삶과 죽음은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말에서 언제나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아름다운 여행의 마지막 여정까지 용기 있게 걸으신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늘 우리 영웅이셨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이 안고 가신 진한 그리움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사랑은 밤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밤을 지새울 얘깃거리입니다

아버님은 그토록 가고 싶으셨던 고향땅에 가지 못하고 동작동에 안장되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전쟁 때 사선을 넘으며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동작동에 계시니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한 묵상이 가장 깊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는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제가 배운 신학교 교수님은 요한복음이 독수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복음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몇 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 더 말할 수 없이 장엄하며 광대하며 영광스러우며 거룩합니다. 중심 단어 몇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창조, 생명, 빛입니다. 태초 곧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서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그 말씀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사람도 물론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사람에게 빛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빛과 어둠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관하여 선과 악, 긍정과 부정, 삶과 죽음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적 지식으로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명 현상과 빛은 뗄 수 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생활 경험으로도 이 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빛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경험한 일이 떠오릅니다.

남자 유학생 한 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부인과 함께 독일로 왔습니다. 그 때가 시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부인은 독일 생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추적추적 비가 내리면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독일 중부와 북부 지역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시월 정도부터 이듬해 이월까지비가 많이 내립니다. 소낙비처럼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락가락 비가 내립니다. 기온은 우리나라 겨울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는데 비가 내리니까 추위가 몸 안으로 파고듭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제가 유학하던 때가 삼십여 년 전인데, 독일은한국에 비해서 냉난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이되기 전까지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유학생의 부인이 그때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빛을 보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생명이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의 어둠에 비쳤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 었습니다. 5절의 뜻이 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공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표현은 '이기지 못하더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구절을 묵상하면 또 다른 감동이 밀려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힘이 죽음의 힘보다 강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십시오. 살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생존 본능 말입니다. '죽고 싶다'는 충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성이 약해져서 아픈 현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절로 건너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광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가르침이라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칩니다. 아니,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십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이 그분이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분은 당신의 땅과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죄로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비루해진 사람이 다시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14절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 살면 은혜와 진리를 누리며 삽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 말입니다. 14절이 감동적인 까닭을 정확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과 육신,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이 두 단어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는육체의 타락과 불완전함을 넘어서 있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시각으로 육체나 물질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온전한말씀이 온전한 육신이 되셔서 사람 사는 땅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체의 생명을 무시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육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적인 영역을 부정하거나 죄로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 '영생'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고, 병든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셨고 따돌림 받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 현 상의 병약한 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사십 일을 세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 습니다. 예수님은 동터오는 시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 일곱 명과 함께 아침식사 를 드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밤 고기잡이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아침 먹자."

주님께서는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아침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좌절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현상에서 신체와 마음을 자상하게 보살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운데 있는 6절부터 8절까지를 건너뛰어 앞뒤를 연결하여 묵상했습 니다. 가운데 있는 석절은 무엇입니까? 먼저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저는 20대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세상에 다시 보내준다면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고 제게 물으시면,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바로 '세례요한이요' 하고 대답할 겁니다. 세례요한은 제가 신학공부를 하던 젊은 시절에 늘 제 마음에 신앙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을 때도 자신의 자리와 본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깊이 사랑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그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 현상이 넉넉하지 못한 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도와구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의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힘들고 어려워진 모든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생명을 돌보고 보듬읍시다.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생명을 보듬는 일이 넉넉한 사회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문화권 중에서 어느 문화권이 좋은 것인가요? 생명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문화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 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표준새번역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삶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듬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힘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박요한 강도사 테이블 처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장 4절~11절>

-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 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 하냐 하니라
-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바울. 그리고 우리는 그 인물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죠. 세상에는 너무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가난함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전을 거듭하여 결국자신의 사업을 성공한 젊은 CEO를 보았습니다. 과거에 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었

고, 부모님의 불화 속에 어머니가 아프시고, 심지어 자신까지 큰 병에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을 보면서 저는 그를 향해 '대단하다'라고 느끼기보다, '나랑은 다른 사람이네'라고 느꼈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되는 사람은 수 천 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모두 나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드라마틱하고 멋지고, 예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속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기독교에서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여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나 처럼 해라!"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그리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나를 사무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평가하여생겨난 과장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사람 한나는 사실 너무 보잘 것 없는 상태의 여성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명이 한나고, 한명이 브닌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중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오히려 한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에게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브닌나보다 뭐가못해서 애를 못낳지? 너무 화나는데?" 그뿐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브닌나는 오히려 한나를 조롱하고 약올렸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애교도 부립니다.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나 남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 바닥치는 자존감과 브닌나를 향한 억울함과 분노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 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화난 모습 그대로 기도하게 됩 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성전의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해 중얼중얼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고 느껴졌는지 그녀를 꾸짖었 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뭔가 멋지거나 대단한 구석이 없습니다. 한나를 존경할만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한 나는 정말 짜증났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 못 없어요. 저는 그냥 브닌나 때문에 짜증납니다. 그녀가 밉습니다. 그녀가 저를 매일 조롱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기를 주세요! 그 아기 하나님 드릴테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이건 사실 단순한 감정싸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앙의 교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지만, 한나의 기도가 대단하다 평가하기엔 너무 감정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저 한나는 화가 나고 잔득 질투 나니까, 씩씩거리며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태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이웃과 지인, 친구와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 갖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조금의 감사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결국 한나는 질투심이 폭발하여 짜증과 분노와 시기심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 칭얼거린 것 아닙니까? 브닌나가 싫으니까,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하나님께 화내고 짜증내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일까요?

네, 예배일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도 예배일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한나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배운걸 알아도, 내가 아프고, 분노하고 내 감정이 나를 뒤엎을 때, 우리는 한나와 다를바가 없더라고요. 브닌나가 죽도록 싫었을거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죽도록 싫었을거에요.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자신의 몸이 끔찍하게 싫었을거에요. 그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거에요.

그렇게 분노와 억울함과 짜증과 눈물이 뒤섞여있는 상태로 한나는 브닌나를 향해 칼을 들지도, 자신을 향해 칼을 들지도 못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저주스러운 자신의 몸을 질질 끌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술 취한 모습이든 정 신을 놓아버린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녀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행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평안이라는데, 저는 평안이 눈곱만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투는 과분합니다. 그냥 아플 뿐입니다. 닫힌 내 자궁이, 임신하지 못하는 내 몸이 싫은 것입니다. 브닌나를 미워할 힘도 없습니다. 그녀보다 못한 제가 미울 뿐입니다."이게 한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희는 배운 대로 못합니다. 저희는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화나면 화난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입

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쁜 것 맞는데, 그 만큼 현실도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게 접니다. 세상도, 교회도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바닥치는 제 자존감, 누가 저더러 그 자존감을 올리라, 회복하라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들이 하란대로 해도 똑같이 고통이 반복 되는 게 제 삶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발전과 경쟁 속에서 나는 오늘도 패전병입니다. 교회의 뜨거움과 열정 속에 저는 오늘도 식어버린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 조금도 변하지 않으 니, 그냥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냥 살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저 살게 해주세요."

이제 보니 한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간 거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화려한 말도 없었고, 기독교인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다운 훌륭한 성경 위인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실거에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듯, 정말 여러분을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추모 예식서

"우는자들과 함께 울라" 자살유가족을 위한 추모예식서





사라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배시 유가족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인도자

• 침묵의 기도 ······ 다 같 이

인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함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자: 우리가 상실의 고통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품으신니다

회 중: 하지만 우리는 대답 없는 하나님에게 온 힘을 다해 도망치려했습니다.

다함께: 그 하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인도자: 우리가 슬픔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슬픔 속에 계십니다.

회 중: 우리의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다함께: 주님의 위로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인도자 :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아픔입니다.

다함께: 주님의 용서와 치유를 믿으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합시다.





• 시편교독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회 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인도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회 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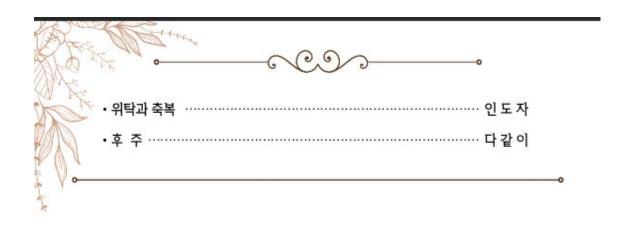
다함께: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 응답의 찬송 ······ 다 같 이





- 말씀 낭독 ····· 인 도 자
- 기억의시간 ····· 담당자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17:8]



자살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성도를 위한 추모예식 가이드

많은 자살자 유가족들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오해로 인한 상처, 위로받아야 할 교회와 신앙공동체 속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자살의 문제가 생겼다면, 교회는 더욱 지혜롭게 유가족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1. 조심스러운 접근과 지혜로운 장례/추모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 ; 자살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가족의 경우, 우선 목회자가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만이 유가족에게 좋은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공동체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 2. 긴급한 유가족의 필요를 살펴보고, 사고 이후의 과정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 ; 자살로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유가족들은 더욱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찰서나 장례식에 동행을 하거나, 유가족의 심리상태를 잘 지켜보며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례 및 추도식은 교회에서 먼저 인지하고 미리 준비하며 진행합니다.
- 3. 신앙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상 징후 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 ; 유가족들의 경우, 일반적인 어려움과는 다른 심리적 불안함과 우울증, 다양한 정신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개입이나 주관적 인 도움을 지양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 4. 유가족을 위한 돌봄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 교회 상황에 맞는 자살예방과 유가족을 위한 돌봄사역들을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5. 추도식관련

; 자살유가족 추도예식은 설교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적, 회복적 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① 목회자는 유가족들에게 추도예배에 대한 의견과 일정, 장소 등을 미리 협의하고, 함께 예식에 참여할 대상들을 정하도록 합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일을 중심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미리 사전에 상담과 심방을 통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추모식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② 상실한 가족을 충분히 생각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고인에 대한 정보와 좋아하는 찬양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추모식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③ 추도식 설교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에 따라 준비하며,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진행합니다.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교리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고인에 대한 애도, 가족의심리적인 지지, 성경말씀을 통한 위로, 권면과 감사의 요소로 준비합니다. ④ 가족들이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예수님은 상처입은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영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통해 한국교회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함께 감당하길 소 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관단체]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생명의 문화를 통해 자살의 고통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설립된 자살예방전문단체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그 원인을 개인 혹은 사회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자세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예방하고 치유해야 할 중요한 세대 통합, 사회 통합의 주제입니다. 교회도 이제이러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의 책임을 감당해야합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핵심가치로 가지는 교회는 학교와가정 그리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와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는 교회의 이러한 힘을 극대화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일에 다음과 같이 헌신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역 및 핵심가치 (Ministry & Value)

- 교육 사업(교육&연합) :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명보듬이' 무지개교육을 실행하고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합니다.
- 상담 사업(돌봄&나눔) : 자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를 돌보며 나눔 속에서 영적 회복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 캠페인사업(문화&참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와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생명 문화 확산에 이바지합니다.

사명선언문

LifeHope는 이 땅에 상처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다.

후워안내

- ◆ ARS후원 1877-1910
- ◆ 국민은행 924501-01-317709
- : LifeHope 기독교자살예방센터
- ◆ 국민은행 093437-04-007997
- : (재)한빛누리(LifeHope) *기부금영수증 발급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9길 5, 201호 / T 070-8749-2114 / F 02-2632-2005

협력단체 소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신학적 전통을 서로 존중하고 일치를 모색하는 교단과 기독교연합 기관 들의 협의체입니다. 1924년 이래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그리스 도인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이고 힘쓰는 하나님의 선교 기관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706호 T 02-742-8981 / F 02-744-6189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교단들의 연합체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오랜 역사를 갖고 성장해온 교단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912호 T 02-744-6200 / F 02-744-6202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목회자 자신과 섬기는 교회와 소속된 15개 교단 목회자협의회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빛과 소금의 본분을 더하고자 모인 협의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되돌릴 것과(Unity), 우리가 속한 목회 현장의 참된 갱신을 위해 노력하며(Renewal), 정의의소리와 청빈의 삶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Diakonia) 이웃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71-1 1동 406호 T 02-586-8617 / F 02-586-8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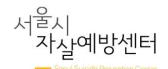
한국교회봉사단은 선교초기부터 이 땅에 병원과 학교, 그리고 고 아원과 양로원 등을 설립해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온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한 디아코니아 (Diakonia) 연합기관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705호 T 02-747-1225 / F 02-764-1225



전국신학대학협의회는 한국사회 속에서 신학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신학교육의 발전을 꾀하고자 1965년 5월에 창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육기관 협의회입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우수한 사회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401호 T 042-829-7370 / F 042-829-7362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 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 속한 자살예방전문센터입니다. 서울시민 을 대상으로 24시간 자살 예방 핫라인 서비스인 '마음이음' 상담 전화(1577-0199), 자살위기 긴급출동, 자살유족 심리사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자살 예방사업 지원, 자살 언론보도 감시를 위한 시민 옴브즈만 활동 지원, 자살 예방 지킴이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 자살예방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272, 5층 T 02-3458-1000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4-717-3000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031-212-0435-6
•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054-748-6400	•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52-716-7199
•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055-239-1400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42-486-0005
•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1-350-1700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2-600-1930
•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63-251-0650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32-468-9911
•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41-633-9183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53-256-0199
•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43-217-0597	•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51-242-2575
•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033-251-1970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02-3444-9934

광역자살예방센터

• 강원도자살예방센터	033-251-1970	•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053-256-0199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031-212-0437	•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051-242-2575
• 광주광역자살예방센터	062-600-1930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02-3458-1000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032-468-9911		

민간단체

•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070-8749-2114	• 사랑의전화상담센터	02-3272-4242
• (사)생명존중교육협의회	02-904-6647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02-318-3079
• 불교상담개발원(자비의전화)	02-737-7378	• 한국생명의전화	02-764-8783

자살예방센터

• 남원시자살예방센터	063-635-4122	• 광명시자살예방센터	02-2618-8255
• 천안시자살예방센터	041-571-0199	• 가평군자살예방센터	031-581-8872
• 홍천시자살에방센터	033-435-7482	• 여주시자살예방센터	031-886-3435
• 원주시자살예방센터	033-746-0198	• 성남시자살예방센터	031-754-3220
• 강릉시자살예방센터	033-651-9668	• 울산중구자살예방센터	052-292-2900
• 화성시자살예방센터	031-369-2892	• 울산북구자살예방센터	052-288-0043
•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031-828-4547	• 울산동구자살예방센터	052-233-1040
• 이천시자살예방센터	031-637-2330	• 울산남구자살예방센터	052-227-1116
• 용인시자살예방센터	070-4457-9373	• 인천남구자살예방센터	032-421-4047

• 양평군자살예방팀	031-770-3532	• 성북구자살예방센터	02-916-9118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031-418-0123	• 성동구자살예방센터	02-2298-7119
• 시흥시자살예방센터	031-316-6664	• 중앙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031-247-3279		

기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앙자살예방센터 참고.

• 중앙자살예방센터	http://www.spckorea.or.kr/index.php
------------	-------------------------------------

협회

• 대한의사협회	02-794-2474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02-702-5683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
• 한국생명의전화	02-763-9195	•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2020. 9. 13일 오후 4시 각자의 자리에서 LIFE WALKING 티셔츠 입고 1004걸음 걷기 에 동참해 주세요!



비대면 챌린지

사전 접수 기간

2020. 8. 16일 - 9. 2수



사전 접수 기간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LIFE WALKING 티셔츠를 증정합니다

참여방법

- 1. '체리 희망나눔 플랫폼' 어플 다운로드 및 가입
- 2. 어플을 통해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참여 신청
- 3. 생명보듬주일(9/13) 오후 4시에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1004걸음(약 1km) 걸으며 생명메시지 전하기



1004걸음 걷기는 어플을 통해 매일 도전할 수 있습니다



1004걸음 도전 성공 시 완보 인증 카드를 어플에서 다운로드하여 #LW걷기축제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려주세요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



축제 기간-9월 13일 일 PM 4시~9시-1004걸음 걷기에 도전해 주신 분들에게는 1~3위, 1004위를 비롯한 무작위 랭킹 추첨으로 총 10분에게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 * 추첨결과는 9시 30분에 발표
- * 9/13(일) 오후 4시 이전 걷기 기록은 초기화

본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아동·노인 자살예방교육과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에 사용됩니다 (문의: 율목종합사회복지관 031-466-9125)













